

미히라산 등산루트

미히라산의 정상으로 향하는 4.5km의 등산로는 히루젠 고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하이킹 코스 중 하나입니다. 이 등산로는 완만하게 해발 차 300m를 올라가기에 대부분의 연령층, 다양한 수준의 하이커에게 적합하며, 등산로에서는 이 지역에서 제일가는 풍경을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.

돗토리현과 오카야마현의 경계에 걸쳐 있는 미히라산(1,010m)은 다이센오키 국립공원의 남쪽 구역이 내려다보이는 절경 명소입니다. 산 정상에서 북쪽을 보면 거대한 휴화산인 다이센(1,729m)이 보입니다. 동쪽과 북동쪽에는 기복이 있는 히루젠 고원과 ‘히루젠산자’라고 불리는 히루젠의 세 봉우리가 자아내는 혹 같은 모양의 능선이 보입니다.

등산로는 침엽수와 졸참나무 숲 등 다양하고 풍부한 풍경 속을 지납니다. 미히라산 정상 부근은 조릿대와 억새가 있는 넓은 들판이 경사면을 덮고 있습니다. 억새 끝의 이삭이 가을바람에 흔들려 잔물결처럼 일렁이는 모습은 이 계절에만 보실 수 있는 가슴속에 남는 광경입니다.

1898년, 일본군은 이 들판을 말의 육성과 훈련에 이용하기 위해, 2,300헥타르의 목초지를 전체 길이 56km의 흙벽으로 둘러쌌습니다. 그중 46km의 벽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. 이 흙으로 구축한 성채의 일부는 산 정상 부근의 길을 따라 뻗어 있습니다.

등산 입구의 주차장부터 시작되는 잘 정비된 고리 모양의 루트는 북서 방향으로 산 정상까지 올라가며, 아나가타와 고개를 거쳐 하산합니다. 한 바퀴를 도는 데 약 2시간 남짓 걸립니다만, 산 정상에서 원래 온 길을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. 이러한 경우 시간은 약 80분으로 단축됩니다.